

2022년 11월 2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6편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82(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12장 1~12절(구약p.772)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만 참으로 백성으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4.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6.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7.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8.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9.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10.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1.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때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불의하고, 악하며,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에 그때를 기다리며 더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모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1.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본문 4~6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해 어려움에 처하자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오히려 그를 정죄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욥이 죄를 지은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원론적 진리, 즉 인과응보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의인이라고 항상 평안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항상 재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의인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악인들이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재앙을 만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반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탄식합니다. 혹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환난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 형통과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의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의인에게 환난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악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뜻을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이 다 헤아려 알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의 응답이 없고 말씀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지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2.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 시편 37편 1~4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극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욥을 높이실 것이고, 무지함으로 그들 비난하던 자들은 정죄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도가 마땅히 삼가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반면에,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 가운데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함으로 범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의인이 환난 중에 죽임을 당하고 악인이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공의로 선

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90(통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폐 회 / 주기도문